The return of Christ and the 1000 years of Revelation 20: how should we understand these things? preached by Wes.Bredenhof. at Providence CanRC.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 계시록 20장의 천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번역: 익산우리교회 이은중 목사
(translated in korean: Pastor. Eun Joong, Le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일하신 것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주의 날 19번째 첫 번째 두 질문과 대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이 땅에서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그런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오른 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선물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신앙고백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분명하게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나의 모든 대적들은 그에 합당하게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는 의롭다 함을 받고 하늘에 속한 기쁨과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고대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위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위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종말론은 마지막에 될 일들에 관한 교리입니다. 제가 자주 질문 받는 한 가지가 요한 계시록 20장의 천 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다른 많은 교회들은 천 년 또는 천년왕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남겨질 일들에(in the Left Behind)관한 시리즈 책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이 영화로 만들어졌고, 최근에도 여전히 또 다른 영화로 리메이크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신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는 요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천년왕국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요한 계시록 20장 첫 6절까지의 합당한 이해입니다. 먼저 이 구절들을 간단하게 봅시다. 2절은 사탄이 천 년 동안 결박될 것을 말씀합니다. 3절은 천 년이 끝 난 후에, 사탄이 잠시 동안 풀릴 것을 말씀합니다. 4절은 살아난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5절은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 년 이후에 살아 날 것

을 말씀합니다. 6절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되고 거룩하다는 것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릴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고 머리를 긁적 거린다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천 년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까? 그게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래전부터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답변을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나는 먼저 간단하게 그 개요를 말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 년에 대한 질문과 천 년 왕국에 대한 질문을 살펴 볼 것입니다. 이런 각각의 접근을 천년 왕국설- 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에 대한 믿음인- 의 형태로 설명할 것입니다. 우선 전천년설(pre- millennialism)입니다. 전천년설은 이 땅에 문자적으로 천 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천년설(post- millennialism)입니다. 후천년설은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수립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천년설(a-millennialism)입니다. 접두사 'a'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소한 문자적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올바릅니까?

우선 오늘날 가장 유행하는 전천년설부터 봅시다. 이것은 많은 북미 복음주의 교회가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나 교리를 진술할 때 아주 보편적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천년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기다립니다." 전천년설의 형식은 남겨질 일과 관련된 책과 영화에서 쓸모있게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북미와 종말론에 대해서 항상 열심히 배우지 않은 개혁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 또한 전천년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여러 갈래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그것들을 모두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는 그 중에서도 아주 유행하는 한 가지만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전천년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유대인들 가운데서 왕국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교회와 연관시키는 두 번째 계획을 착수하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견해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합니다. 그들은(이스라엘과 교회) 두 개의 다른 실체입니다. 전천년설의 이런 형식에 따르면, 구약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 하나님 백성 간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별해야 한다, 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사의 어느 시점에, 그들이 소위 "휴거"라고 말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 들려 올려 질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남겨 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남쪽 국경에서 여러분은 때때로 차 범퍼에 붙은 스티커를 볼 것입니다. "휴거할 경우에는 이 차에는 운전자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적인 사람은 심지어 휴거 보험까지 팔기도 합니다. 당신이 휴거한다면, 휴거 하지 않을 가족들이나 애완견 그리고 무언가 여전히 있게 될 것을 돌보는 것이 이 상품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은 휴거되어 세상 밖으로 나가고, 단지 믿지 않는 자들만 남을 것입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환란입니다. 세계에 엄청난 환란이 7년간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기간 동안에 활개치면서 악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이 환란의 시기가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세 번째 오심은 공개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천 년 동안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스립니다. 성전은 거기서 다시 건축되고 구약의 제사제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천년이 차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배교) 사탄과 마지막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은 패배하고 무저갱으로 떨어집니다. 그때에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것을 단순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 해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주 잘 설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식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천설년설이 남겨진 자와 같은 책자시리즈에 쉽게 차용되는 이유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이런 접근은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 계시록 20장의 천년에 대한 해석으로 한정합시다. 당신이 전천년설에 대해 더 공정하게 비평하고 싶으시면 김 리들바거의 책 “무천년설에 대한 변호”(A Case for Amillennialism)를 참조하십시오.

요한 계시록 20장을 이해할 때, 전천년설이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그 고집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의 기술은 액면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66권의 많은 양입니다. 이 각각의 책들은 각각의 성격이 있고, 여러 다양한 문학양식이 있습니다. 어떤 문학양식에 해당하는 단어는 장르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장르들이 있습니다. 이 장르 또는 글쓰기 양식의 하나가 묵시입니다. 묵시 장르에 속하는 책들이 있고, 소위 묵시록이라는 글쓰기 양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요엘, 스가랴의 일부가 그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대부분은 이 양식입니다. 묵시문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상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은 이런 점을 종종 놓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을 전천년설은 전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릴 문자적 1000년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우리는 사탄이 큰 쇠사슬에 묶이는 것을 읽습니다. 사탄은 천사입니다. 그는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문자적으로 물리적 쇠사슬로 묶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언어는 상징이고 비유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언어가 그 절의 한 부분에서 상징적이라면, 여러분은 그 언어가 속한 그 절의 다른 부분에서도 상징적이라고 고집스럽게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당신이 묵시문학을 다룬다면 말입니다. 큰 쇠사슬은 비유적으로 봐야하고 천 년은 문자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자의적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천년설로 읽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전천년설에 따르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는 아직도 오고 있는 중입니다.(is still coming)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28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has come upon you) 누가복음 17:20-21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사람을 듣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is in the midst of you) 골로새서 1:13에서, 바울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right now have been transferred)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지금 이미 다스린다는 사실을 없애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천년설은 이런 성경의 진리를 간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천년설은 의인의 부활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곤경에 빠뜨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천년설은 성도들이 천년이 시작될 때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천 년이 다 차고 마지막 배교가 있은 이후에나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39-40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선택한 자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 번 그것을 반복합니다. 마르다도 요한복음 11장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23-24)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다 천 년 통치가 시작되는 때가 아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활합니다. 이것이 또한 벨직신앙고백서 37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유일한 부활은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한 번 있는 유일한 부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천년설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천년설은 어떻습니까? 진리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 오랜 역사동안, 이것을 주장하는 수많은 개혁교회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앙고백도 후천년설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접두사 '후'('post')가 그 모든 개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1000년 후에 오십니다. 후천년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은 오직 한 번입니다. 1000년에 관해서는, 후천년설은 필수적으로 1000년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과정 중에 어떤 한 기간(a set period)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미래에 있을 이 기간에 복음이 모든 지역에 선포되고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기독교가 확대되고 세계가 기독교화가 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굴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기에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보다)앞서 있는 황금시기입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 전에 사탄과 마지막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낙천적입니다. 우리는 다가 올 멋진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남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낙관적인 미래를 지지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인 영광과 위엄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이 질문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은 현 세대와 오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이

두 세대에 각각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오는 세대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은 모든 사라질 것이고, 모든 죄도 사라지고, 모든 악이 분명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정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세대에서는 그 나라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확대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 방식으로 진전됩니다.(Christ's kingdom advances, but in a counter-intuitive way. 역자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고난과 박해가 여전이 있고, 그런 방식이 현 세대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라는 의미) 그것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문자적으로) 그리스의 신으로 경배 받을 순간에 있었습니다.(11-13절) 그러고서는 바로 다음에 벌어진 일이, 같은 도시에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19절) 하지만 거기에 복음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21절)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현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역경과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현 세대에서는, '기독교가 널리 포용될 것이라' 고 우리가 기대하도록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아주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천년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요한 계시록 20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방식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무천년설(amillennialism)은 오늘날 대부분의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무천년설"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천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견해에 해당하는 다른 이름을 제안하신 분이 파브르박사(Dr.j.Faber)입니다. 파브르박사는 그것을 nunc-millennialism(nunc-천년설)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unc 는 "지금"에 해당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천년설(now-millennialism)"입니다. 그 용어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천년은 지금 현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은(천년은) 후천년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미래의 임하는 어떤 시점이 아닙니다. 그것은(천년은) 전천년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 후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은 여기 바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입니다. 문자적 1000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사이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됩니다. 사탄은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탄이 별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는 복음의 진전을 막아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수 많은 악한 짓들을 할 것이지만, 결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대 사명은(마태복음 28:18:20)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져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있고,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후천년설의 낙관론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결국에는 이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선택된 자들을 이끄시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세계가 기독교화되고 모든 반대(자)가 멈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으시는 사역을 좌절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 너도 결코 할 수 없어.

요한 계시록 20장은 역사의 어떤 시점에, 사탄이 결박에서 풀려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 기간에 미혹이 널리 퍼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설명합니다.

요한 계시록 20장 4-6절은 천년동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통치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한 자와 죽은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서 누리는 그들의 생명은 첫째 부활로 표현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살아났고, 바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생명을 얻는 또 다른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의인과 불의한 자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역자 주 요한 계시록 20:11-15)

형제 자매 여러분,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한 교리는 정말 혼란스럽고 질문이 쏟아지는 영역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또한 종말론과 씨름했었습니다. 저는 전천년설에서 설득력있는 어떤 것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생일 때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무천년설이 올바른 견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 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 마지막 기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벨직 신앙고백서 37장 보시면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선택한 자들의 수가 찼을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으시어 볼 수 있게 큰 영광과 엄위로 재림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신자들은 의롭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회복된 창조세계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지만,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일어날 단순한 설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힘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올바른 이해가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고,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생활로 이끕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다른 곳보다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해하기가 쉬워서 잘 연마하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드릴 기도의 출발점은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한 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옵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소망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심을 기뻐하옵나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옵나이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선하신 다스림 가운데, 우리와 세계에 널리 복음이 확대되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사탄이 지금 묶

여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모으시는 사역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사역이 계속되게 하시어 택한 자들을 주님의 교회로 이끄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풀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주님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그러한 구절을 잘 이해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와 혜안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음으로 끊임없이 주님이 자녀다웁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